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33호 / 2026년 08월 18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결국, 권한의 문제였다

- 중대재해 이후에도, 기존 인력운영과 안전관리체제는 그대로

지난 14일(금)일에 이어 15일(토)일에 개최된 산보위에서 노동조합은 핵심 쟁점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안이 있는지 물었다. “없습니다.” 총괄대표의 짤막한 답변뿐이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분명하다. 이번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이전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이 이번 중대재해와 관계없는 ‘기존 현안’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 노조가 묻는 것은 채용이 아닌 안전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를 설비 하나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설비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외주작업은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되어 왔는지, 현장의 인력운영은 안전했는지, 중간관리자는 본연의 관리,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였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한 구조가 있다면 바꾸자는 요구인데, 회사는 팽택 보전인력과 익산 기능직 채용 계획을 제시했다. 안전을 위한 산보위 요구를 현안문제로 둔갑시킨 것이다.

□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정몽원 회장뿐인가?

사측이 노동조합에게 해결 의지를 되물었다.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회사가 “사고는 수습하되, 회사 운영방식까지 바꿀 생각은 없다.” 라는 생각을 바꾸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사망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같다. 대표이사과 총괄대표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정몽원 회장이 결정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휴가도, 주말도 없습니다!

- 누군가는 왜 토요일에 산보위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지난 7/22일, 평택공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경찰과 응급차 소리를 듣고 연락한 조합원으로부터 사고 발생을 전달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측은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초동 조치가 끝난 다음에야 사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이연실색해집니다. 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임금과 단협, 산보위가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섭에서 임금과 복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금과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생명입니다.

□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고 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유가족이 아직도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토요일이 산보위 개최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고 김승모 동지의 부모님은 “내 아들은 죽어도,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같은 마음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살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휴가를 반납한 간부들은 벌써 한 달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판교에서 선전전과 피켓 시위도 하고, 일요일이면 정몽원 회장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에게 토요일이니, 주말이니 기다려 달라고 할까요? 조합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발방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임단협 끝나고 할까요?

※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간부들이 앞장서 대응하면서 조합원과 함께할 기회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찰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동지들께서는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김승모 동지 빈소 Ⅵ인종장례문화센터 Ⅵ2층 무궁화실 】